

북한공산주의 변화전망

서 대 속

미국하와이대 교수

본단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보다 더 이성적·객관적 시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문제에 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알기 위해선 우선 과거 북한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으며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를 얘기할 수는 없다. 예컨대 한국과 헝가리가 현재 수교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나 헝가리인이 한국의 1공화국에서 6공화국까지의 정치적 변화를 모두 알 수 없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중소관계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북한은 변화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얘기해 보고자 한다.

현재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속에서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 소련은 스탈린에서 고르바초프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하였고, 중국 역시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속에서도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정책과 군사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 기교기념 초청 특강요지('89년 5월 27일)

그러하다. 통일이 되려면 남한도 변해야 하지만 북한 역시 변해야 한다. 그러나 남한의 군사정책이 변함이 없듯 북한의 군사정책도 한국전쟁 이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화가 없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합치면 인구비례로 볼 때 이스라엘과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은 일본 등 타국을 공격하거나 옛 영토를 되찾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남북한 상호 대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증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남한의 민족주의자와 북한의 공산주의자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본래 독립운동을 함께 있어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자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에는 민족주의자들만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의 혁명박물관에는 김일성의 독립운동 행적만을 전시해 놓고 있다.

남북분단의 원인을 미·소 강대국에게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단은 남쪽 이승만의 정부 수립과 북쪽 김일성의 정부 수립에 의해 3·8도선이 고정화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후 남한은 북진에 의해 통일을 이루려고 생각했으며 북한 역시 남진에 의해 통일을 이루려고 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북진통일을 위한 준비가 없었고 김일성은 군대를 양성하여 한국전쟁을 야기시켰다. 이제 한국전쟁은 소련의 공산권 팽창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북한의 남침은 무력에 의해 통일하려는 김일성의 의도였다. 이것은 1951년 7월 중순 김일성이 프랑스 가자와의 회견내용에서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려고 군대를 가지고 이남으로 내려 갔을 때 누가 우리를 침략자라고 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김일성은 전쟁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으며 한국 전쟁은 김일성의 민족해방 정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후 남북의 관계는 악화되었는데 결국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한국전쟁에 의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면 한국전쟁이 북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자.

한국전쟁이후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국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소련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에 조력하지 않음으로써 전후 김일성은 반소 친중적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1955년 처음 소련으로부터의 정치적 자주를 표명하였다. 예컨대 소련예술인의 초상화 및 소련의 풍경화를 떼어내었고, 신문·서적에 있어서도 소련식을 탈피할 것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의 변화는 한국전쟁 후 김일성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세 정치집단이 김일성에 도전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세력은 소련에서 등장한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허가이는 북한의 노동당 조직을 소련 공산당식으로 개편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자살하고 만다. 참고로 북한의 노동당조직은 당원이 북한 인구의 17%를 차지, 소련과 중공이 각각 4%, 3%를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다음의 세력으로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세력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남로당 계열의 군대를 이용, 쿠데타를 시도하여 조선노동당을 없애고 조선공산당을 결성하려 하였으나 결국 숙청되었다. 또한 김두봉 등의 연안파 세력도 김일성의 독재에 반발하나 결국 제거된다.

이상의 국내적 문제와 더불어 1960년대에는 국외적 문제가 발생한다. 1960년대 전반인 61~65년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게 되는데 이것은 중소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북한이 중공편에 서서 소련에 도전하였기 때문이다. 61년에 북한주둔 소련 기술자들이 후퇴하자 북한은 소련을 비방하기 시작하였으며, 1963년 2월 8일 김일성은 경제적으로 소련으로부터 자립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1955년에 이은 주체사상의 두 번째 이념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1963년 10월 김일성 군관학교 7차 졸업식에서 “이제는 국방력도 소련으로부터 자립하자”고 말함으로써 소련으로부터의 자립이 극도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소감정은 중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다시 완화되게 된다. 중국에서 대문화운동이 시작되어 북한에 홍위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홍위병들은 북한을 비방하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남한이 5·16군사혁명 이후 일본과 수교를 맺고 일본의 자본을 도입, 경제적 발전을 시작한 것도 북한이

소련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한 이유가 된다. 한편, 중공과의 갈등은 백두산을 사이에 두고 국경분쟁을 하게 됨으로써 극치에 달하게 되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회복이 된다.

남북대화 역시 전쟁 20년 후인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 남한측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화에 응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대원칙은 사실상 남북한 공동이 아닌 북한 단독의 원칙이라 하겠다. 즉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대단합이라는 3대 원칙은 그 의미가 각각 남한에서 미제국주의 추방과 남한 군대의 현대화 방지, 남한에 반정부운동 강화라고 밝혀졌으며, 이 세가지는 궁극적으로 남한정부를 전복하여 남한을 해방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통일정책에 있어선 변한 것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1972년 남한에서는 유신이념에 입각한 제4공화국이 들어서고 북한에서도 1972년 12월에 개헌을 통해 주체사상에 기초한 김일성체제를 확고히 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성과는 없게 되며 남북의 통일방안에는 격차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정책은 변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한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북한에 가장 큰 변화가 예견되는 것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이 정권을 계승하였을 때라 생각된다. 김정일은 북한에서 성공적으로 정권을 계승하고 집권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은 김일성 밑에서 17년 동안이나 여러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른 인물로 대처하기는 힘들다. 현재에도 김정일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개혁에 있어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김일성의 혁명전통인 빨치산의 후예들이 김정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김일성대학 재학 당시의 김정일 동기생들이 현 정권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째, 김일성은 족벌정치를 행해왔는데 김일성의 인척중 김정일이 가장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계승하리라고 믿어진다.

김정일이 정권을 계승하고 나면 북한주민과 당사이에든 현재와는 다른 많은 변화가 기대되어지며, 대남관계도 보다 호전될 것이라 여겨진다.